

【특집 · 열운 장지영 선생의 학문과 인간】

열운의 이두 연구 및 기타 연구

장세경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열운 선생의 이두 연구는 아마 1948년 연희대학교(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초빙된 이후부터 시작된 듯하다(당시 61세). 광복 이전에는 독립 운동과 국어 지키기와 교육 및 보급 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주로 하였던 관계로 표기법과 어법(문법)에 관한 것 외에는 국어학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광복 후 3년 동안 미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에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새 나라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어 교사 요원 양성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관리직을 떠나 연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국어학과 국문학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신라가요(향가)와 고려가요 등을 강의하게 되면서 고대 국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중세 국어와 국어 변천, 고대

어 자료의 표기법인 한자 차용 표기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고 연구과정 중이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미 출간된 이두 사전(1976년), 교재로 쓰인 이두 강의(1957년, 유인물), 향가(1955년, 유인물), 국어 변천론(강의 노트, 1955년 이후 것으로 추정됨.) 등이 모두 연희대 시절의 것이다.

이제 이두 연구와 신라 가요 연구와 국어 변천론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겠다.

1. 이두 연구

앞서 말한 것처럼 1948년경 시작된 이두 연구는 바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으니 곧 6·25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연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 3년 여 동안은 연구를 더욱 어렵게 했을 것이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두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자료는 주로 <대명률 직해>, <임진장초>, <광해군 일기>, <대산유집>, <농포집>, <심양장계>, <추안 급 국안>, <각사 등록>, <해행총재> 등에서 뽑았으며 기타 사문서도 이용하였다. 낱말 별로 카드를 작성하였으며 뜻풀이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카드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표기 한자음의 ㄱ, ㄴ, ㄷ... 순으로 낱말을 배열하여 원고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1950년대 중반 쯤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자료수집과 사전원고 작성과 병행하여 이론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이두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이두 사전의 총론과 이론편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 본다. 먼저 총론은

1. 국어 표기의 역사, 2. 이두의 명칭, 3. 이두의 작자, 4. 이두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표기의 역사 : 서력 기원전 2세기 경에는 이미 한자,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고 보며 서기 414년에 세운 광개토대왕릉비를 미루어 5세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한문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와 신라도 같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혀 성질이 다른 한문으로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문학이나, 고유한 인명, 지명, 관직명을 적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초기부터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어 적는 방법(音訓借表記法)을 고안해 냈는데 이것을 ‘이두’라 총칭한다. 이 방법은 비문을 비롯하여 고유명사를 적는데 널리 쓰였으며 7세기 경부터는 노래도 이런 방식으로 적게 된다. 따라서 이두의 발생은 삼국 초 무렵부터라고 볼 만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기에 쓰이던 이두는 한문의 보급이 빨리 진행되면서 그 쓰임이 줄어들어 한문을 주로 하고 이두는 보조 수단(곧 문법형태소만을 적는)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시대에 와서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해야 하는 공문서, 사법문서, 장계, 토지문기, 상속문서, 매매증서 등에는 이두를 써 온 것이다.

이두의 명칭 :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어 적는 방법에 대하여 과거 향찰(鄕札), 이두(吏讀, 吏道, 吏頭, 吏吐, 吏套)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향찰이란 말은 1075년에 나온 <균여전> 제8문 <역가공덕분>의 최행귀 서문에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확실한 고증은 할 수 없으나 우리말을 향언(鄕言)이라 하듯, 우리말을 적은 것이란 뜻으로 향찰이라 한 듯하다. 학자 간에는 향찰과 이두

를 전혀 별개로 보는 사람이 있으나 쓰인 시기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다를 뿐 그 표기법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향찰과 이두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두란 명칭은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대명률 직해> 발문에 처음 이도(吏道)라 표기되어 있고 세종 26년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 어숙권의 <패관잡기>, 이의봉의 <고금석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는 한결같이 이두(吏讀)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吏頭, 吏吐, 吏套'라는 이름이 쓰였으나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吏'는 아전, 서리 등 하급관리로 문서를 다루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요, 혹은 이문(吏文)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道, 讀, 頭, 吐, 套'는 서로 비슷하여 통해 쓸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일반 공문서에 투어처럼 쓰인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이다." 라 하여 향찰이나 이두는 한자를 빌어 우리말 적기의 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같은 일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

이두의 작자: 설총(薛聰)설이 유일한데, 설총 이전에도 이러한 한자 빌어 적기의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한 사람의 머리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쓰게 된 것이 나중에 보편화되었고 보조적인 구실로 바뀐 고려·조선 왕조 시대에 와서 하나의 투어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두의 작자는 따로 없고 고대 삼국시대의 유식자들에 의해 여러 해를 겪는 동안에 정리되고 다듬어지고 고정화한 것이며 처음에는 그 용도가 다양하였으나 후에 공사문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두 자료: 그 당시 알려진 것으로 신라시대의 금석문 5종, 고려시대 금석문 4점, 조선시대 이두자료 16종, 이두 어휘집 5종을 소개하였는데, 철저한 조사를 못하여 빠뜨린 것도 있지만 <이두 사전> 발간 당시까지는 이두

자료의 발굴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1979년 문명대님이 발굴한 <신라 화염경 사경>의 형지기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며 이두사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귀한 자료이다. 그 밖의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고 조선 시대의 공사문서들이 무수히 소개되어 이제는 자료면에 있어 풍부하고 할 만하다.

다음 이론편은 1. 표기법과 2. 어법으로 나누었다.

표기법 :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어 적은 법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자의 소리를 따다가 우리말을 적음.
- (2) 한자의 뜻에서 따다가 우리말을 적음.
- (3) 소리를 어울려 쓰는 법[合音法]
- (4) 된소리 적는 법[硬音表記法]
- (5) 긴소리 적는 법[長音表記法]
- (6) 한자의 절음법[切音法]
- (7) 곱새겨 적는 법[轉借法]
- (8) 끝소리 붙임[末音添記]
- (9) 특별한 것
- (10)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말의 본새
- (11) 그릇된 것

표기법에서는 한자 빌어 우리말 적기에 대한 것이므로 신라 가요나 금석문의 예도 인용을 하였다.

어법 :

- (1) 이름씨[名詞]
- (2) 어찌씨[副詞]
- (3) 매김씨[冠形詞]
- (4) 토씨[助詞]
- (5) 이음씨[接續詞]
- (6) 맺음씨[結語詞]
- (7) 움직임씨의 과거 시간 적는 법[動詞過去時間表記法]
- (8) 높임말 쓰는 법[敬語法]

등 간략한 서술에 그쳤다. 사실 이 부분은 미처 체계화하지 못한 부분이며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일부 요약하여 넣기도 한 것이다.

다음 자료편은 곧 사전부분이다. 이두 어휘의 배열 순서는 이두 표기 한자의 현대음에 따라 ㄱ, ㄴ, ㄷ ... 순으로 하였다. 둘째 이하의 글자도 한가지이다. 다음 <나려 이두> 등 과거의 이두 어휘집의 독법을 [] 안에 표기하였다. 이두 어휘는 형태소로 분석하면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실제 사용은 몇 개의 형태소의 결합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두문에 사용된 것을 한 단어로 쳐서 표제어로 삼았다. 뜻풀이는 비교적 자세히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를 달기도 하였다. 용례는 3~ 4개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상이 이두 연구에 대한 기술이다.

이두 강의안(1957년 유인본)은 이두 사전 원고를 요약한 것인데 구두(句讀 : 입결, 구결)에 대한 설명이 있다. 곧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우리말의 토(곧 조사, 접속사, 결어사)를 집어 넣어서 읽기에 부드럽고 글 뜻을 풀기에 쉽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도 한자를 빌어 쓴 것이니 이두문에서 갈려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예문과 약자 부호를 보여 주고 이두와 구두의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들어 주었다.

1. 이두는 독립문자로 우리말을 그대로 적었음.
구두는 한문 구절 밑에 붙여 쓰는 부속문자임.
2. 이두는 멀리 삼국 초기부터 갈려 나온 것임.
구두는 훨씬 후기에 이두로부터 갈려 나온 것임.
3. 이두문은 비록 한자이지만 우리말을 그대로 적었으므로 읽으면 곧 알아 들을 수 있음.
구두는 한문의 보조로 한문 구절 사이에 넣어 쓴 것이므로 그것이 섞인 글을 읽어도 여전히 알아 듣지 못함.
4. 이두는 우리말의 씨 곧 단어를 적게 된 것임.
구두는 말의 토만을 적게 된 것임.
5. 이두와 구두는 같은 말을 적음에도 그 방식이 많이 다름.

예

이	이다	이되	로	에
이두	亦	是如	是矣	以
구두	是	是多	是大	奴
				厓

이두와 구두가 비슷한 점이 있으나 확연히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었다.

2. 신라 가요 연구

신라 가요에 대하여는 연희대 교재인 〈鄉歌〉(1955년 5월) 뿐인데 균여대사의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의 원문과 최행귀의 한역문, 해독, 주해로 이루어졌다. 해독이나 주해는 대체로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와 같은데 주석에서 몇 곳이 다르다. 몇 가지 예를 든다.

		양주동	열운
예경제불가	3구	저누온	전누온
	5구	塵塵 마락	塵塵마닥
	6구	刹刹마다 뵈시리슬본	덜덜마다 마지슬본
칭찬여래가	5구	뵈시리 슬본	마지리 슬본
	6구	功德入身を 對ᄃᆞᆫ숄디	功德入 모뎡 對ᄃᆞᆫ숄기
청불주세가	1구	한 부테	모든 부테
	2구	비루 化緣 ㄹᄃᆞᆫ샤나	비록 化緣 ㄹᄃᆞᆫ샤나
	5구	새배루 아츨 바미	새배루 아츨 바매
	7구	이 알기 드외매	이 알게 드외매
상수 불학가	6구	命을 施ᄃᆞᆫ ᄃᆞᆫ히두	命을 施ᄃᆞᆫ 사시해두
	10구	년길 알들 빗겨 녀져	년길 안들 빗겨 녀져
보개회향가	1구	한 내이 닷골손	모든 나이 닷골손
	2구	一切善頓部入 도ᄃᆞᆫ혀	一切善頓部入 도ᄃᆞᆫ혀
	4구	이본 물 업시 알리가져	이본 물 업시 씨우가져

총결무진가	2구	내 願 다올 날두 이시리여	내 願 다올 날두 이시마리여
	3구	衆生 ㅅ 깨우미	衆生 ㅅ 깨우미
	9구	아으 普賢ㅅ ㅅ슴아으바	아으 普賢ㅅ ㅅ슴 아스바

다음 강의안에 보면 보현십원가는 유인물과 같은데 <삼국유사>에 실린 14수는 원문과 해독문이 적혀 있고 주해는 한 단어씩만 되어 있고 많은 공란을 남겨 두고 있다. 많은 주석과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미처 손을 대지 못하셨던 것 같아 유감이다. 이제 해독문에서 양주동의 해독과 현저하게 다른 것을 골라 제시한다.

노래 이름	구수	양 주 동	열 운
혜성가	3구	예 ㅅ 軍두 옷다	옛 군두 왔다
원왕생가	6구	두 손 모도호솔바	두 손 모도화솔바
모죽지랑가	8구	다북 ㅅ솔히 잘 밤 이시리	다북 굴형해 잘 밤 지소리
원가	1구	믈히 자시	믈히 자시
도솔가	2구	썸솔본 고자 너는	썸솔본 고자 너는
제망매가	4구	몰다 닐고 가느넛고	몰 니르고 가느넛고
	8구	가는 곧 모드온더	가는 곳 모드온더
안민가	6구	이홀 머기 다스라	이홀 머기 다스려라
	7구	이빠홀 ㅅ리곡 어디 갈려 홀디	이빠홀 ㅅ리곡 어디 가려 더 홀지
도천수관음가	10구	노티 ㅅ 慈悲여 큰고	노히디 ㅅ 慈悲여 큰고
우적가	9구	아으 오지 이호맏홀 ㅅ은	아으 오지 요맏홀 ㅅ은

3. 국어 변천론

연희대학교 대학원의 강의안인데 195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73쪽의 분량인데 끝을 맺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총론, 제1편 소리의 변천, 제2편 말씨의 변천 등 장절을 나누었으나 제2편 '(3) 토의 예와 이제' 이후로는 장절 표시가 없다.

이 국어 변천론은 국어사의 체계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중세 국어 이후 변해 온 언어현상 중 음운과 문법, 의미로 나누어 몇 개의 특이한 것을 골라 그 쓰임의 환경이나 변화 양상, 변화의 원인 등을 서술한 것인데 본인의 견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겠는데 특이한 학설이 몇 개 있음을 지적해 둔다.

총론

국어의 변천에는 때의 흐름을 따라 우리 환경의 변천으로 생활관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고쳐지는 것임에 뜻을 나타내는 말도 여기에 걸음을 맞추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발전적 자연 변천이라 하고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우세한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말에 영향을 받아 바뀌는 것을 부자연스럽고 억지의 변천이라 하겠다.

우리는 역사는 오래지만 15세기까지는 우리 말을 적을 글자가 없어 고대 우리말의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국어변천론의 시작은 훈민적음 창제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현대까지 약 500년인데 그 동안에 말이 많이 바뀌었다.

제1편 소리의 변천

(1) 훈민정음의 구조

훈민정음 예의본과 훈몽자회 범례를 들어 놓았다.

(2) 초성의 변천(닿소리의 바뀔)

이 제목 아래 15세기의 자음이 여러 환경에서 변이음이 되거나 다른 음으로 바뀌는 양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ㄱ’탈락, 자음접변, 구개음화, △, ▽ 음의 음가 등이 언급되었다.

(3) 중성의 변천(홀소리의 바뀔)

‘ㄴ’은 우리말 홀소리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음이요, 우리 원시인이 맨 처음 발할 수 있었던 음이니 이 소리는 성대를 울리고 목구멍을 통하여 소리가 날 때에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순편하게 나는 소리이니 모든 말소리 가운데 최초로 발음된 원시음이다. 이 음이 고대에는 우리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었으나 후대에 와서 차차 분화되고 변천되어 이제는 그 음의 본태를 거의 잃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그 소리가 아직 보존되어 있다.

‘ㄴ’은 원래는 한 가지 소리였으나 넓고 깊은 소리와 좁고 얇은 소리로 갈라졌다. 겹홀소리는 글자 꼴 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도 겹소리로 났던 것인데 후에 홀소리로 바뀌었다. ‘ㄱ’과 ‘ㄴ’은 예외이다.

(4) 덧소리 받침은 뒤에 다른 닿소리가 이어질 때는 덧소리의 아랫소리가 준다. 다만 ㄹ이 위에 있는 덧소리가 받침이 될 때에는 위의 소리 ㄹ이 주는 예가 많다.

(5) 모음조화 법칙은 엄격히 지켜졌으나 후대로 오면서 어법의 통일 의욕

과 한자어가 우리말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무너지고 말았다.

제2편 말씨의 변천

(1) 원시어

원시인들이 처음에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본능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던 것이 습관이 되어 어떤 짓과 함께 어떤 소리는 어떤 특정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말하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짐작컨대 원시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으로 명사가 생겼을 것이다.

곧 형용사나 동사의 몸 그대로 명사 노릇을 하는 것

신다 → 신 가물다 → 가물 → 가물

형용사에 '이'를 붙인 것

기르 → 기르이 → 기리 → 길이

노푼 → 노푼이 → 노푼 → 노푼 → 높이

부푼 → 부푼이 → 부푼 → 부푼

형용사에 '기'를 붙인 것

동사에 '옴, 옹, 올, 이, 기, 개, 애'를 붙인 것

옛적 원시인들의 맨 처음으로 발음한 기본음이 ㄴ, ㄹ, ㄷ이었기에 고대어에 있어서 낱말의 끝소리는 ㄴ, ㄹ, ㄷ 세 소리 가운데 하나로 되었다.

(2) 몸말과 토

고대에 있어서는 다만 몸말이 있고 토가 없어 마치 고립어와 같았으나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고 살림이 복잡하여지매 말에 있어 시비와 경위에 똑똑한 가름이 없어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자기가 뜻하는 바 시비와 경위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말을 골라서 덧붙여서 얼마큼 자기 뜻에 가깝게 발표할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장되는 뜻을 가진 말과 이에 덧붙이는 말과는 그 무게가 다르므로 표현에 강약이 따르게 되고 따라서 덧붙이는 말은 소리가 줄거나 변하여 원 모습을 잃고 어법의 관계만을 나타내 보이는 보조어 구실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토이다. 이 토 없이 몸말 만으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를 붙이면 비로소 말에 변화가 있고 여러 길로 활용되므로 우리 말의 어법은 곧 토의 활용법이다.

(3) 토의 예와 이제

10개의 토를 분류하였는데 과거 <조선어전>의 남자젓(주격), 딸립젓(관형격과 관형사형 어미), 매입젓(부사격과 부사형 어미), 도움젓(보조사) 등 분류법과는 다르다. 이것은 1950년대 국어 문법연구가 많이 발전된 것의 반영이라 본다. 10개의 토는 다음과 같다.

1. 임자토(주격)
2. 쓰임토(목적격)
3. 자리토(처소격)
4. 더볼토(여격)
5. 가짐토(소유격)

6. 부림토(사용격)
7. 가름토(분별격, 절대격) 은/는 따위
8. 견썸토(비교격)
9. 부름토(호격)
10. 뭉침토(단결토) 와/과

(4) 있음음(存在詞) '이시'의 변천

(이 항목부터는 장절 표시가 없으나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였음 - 필자)

'이시'는 현대어의 '있'의 원어로서 존재동사이다. 이것이 말의 발전과정에서 '있, 이, 시, ㅅ' 들로 되었다.

곧 1)이시→잇→있(오늘날의 '있-'이다) 2)이시→이(주격토) 3)이시→시(제주방언에 쓰임) 4) 이시 →시→ㅅ(시상보조어간)

이것은 '이시'가 처음에는 독립성을 가진 어사였지만 오래 써 내려오는 동안에 그 독립성을 잃고 한 어법관계만을 보이는 접미어가 되고 만 것이다. 그 중에 '이, 이시'가 가장 여러 갈래로 분파되고 변천되었다.

1) 주격토로 변함

전술한 것처럼 원래 고립어이었던 것인데 특별히 어느 명사의 존재함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나서 이어 어떠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사실의 주격이 됨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곧,

학생이시 글 읽다(학생이 있어서 글 읽는다.).

그런데 '이시'를 약하게 발음하다 보니 소리가 드러나지 않거나 소리가 줄

어져서 간략하게 되고 본 뜻은 사라져 어떤 어법관계만을 보이는 토로 변질 된 듯하다.

이두의

王世子敎無事越江前進 <심양장계>

世子敎是及諸宰臣憂悶之意 <심양장계>

의 敎, 敎是를 '이시'로 읽는데 이것은 그 몸말대로 쓴 흔적이라 하겠다.

이 '이시'를 공경하는 말로서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시'를 간략하게 줄여서 된 것일 뿐이다. 높은 이가 주격됨을 나타낼 때에는 '띄서 (의 그에 이시어)'를 많이 썼고 글로는 '이시(敎是)', '겨오샤'를 썼다.

주격토는 '이' 하나만 있었는데 홀소리 아래에서는 '이'를 줄인 'ㅣ'만을 위의 홀소리에 합하여 중모음처럼 쓰고 한자 아래에서는 한자음의 끝소리가 홀소리일 때 'ㅣ'만을 따로 떼어 썼다. 다만 윗말의 홀소리가 '이'인 때에는 토를 쓰지 않았다.

2) 지정 동사로 변함

지정 동사란 어떠한 사실이 무엇이라고 여겨 주는 풀이말이다.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소이다.

의 '책이다', '소이다'는 책으로 또는 소로 인정하여 풀이되는 것이다. '책이

다'는 '책으로 있다'는 뜻으로 '책 이시다'가 줄어진 말이고, '소이다'는 '소로 있다'는 뜻으로 '소 이시다'가 줄어진 말이다.

3) 시상 첨가어로 변함(때때감)

동사에는 반드시 이루어진 때가 나타나야 하니 과거, 현재, 미래 등의 구별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우리말 동사에는 과거 시간을 보이는 '더', 현재 완료를 보이는 '거', 현재 진행을 보이는 '느', 미래를 보이는 '리'를 붙여 써 왔다.

그리고 이밖에 과거 시간을 보이려고 할 때에는 동사 아래에 '아 이시'를 붙여 썼는데, 이 '아 이시'는 '옛, 옛' 또는 '시'로 쓰이다가 오늘날의 '왔/였'이 된 것이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思美人曲>

놀 새도 그쳐 있다. <思美人曲>

샤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느니 <續美人曲>

(5) 습불

'습불'은 동사 밑에 붙어 공경하는 말이 되게 하는 것인데 위와 아래에 다른 말이 이어질 때에 그 닿는 소리의 다름을 따라 여러 가지 꼴을 바꾼다고 하고

습불 습 조불 습 습 습

을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이러한 이형태가 나타나는 환경을 기술하였다.

(6) ‘ㄷ(ㄴ), 스’의 변천

‘ㄷ’와 ‘스’는 어떠한 사물을 추상적으로 가리켜 부르는 대명사이니 이젯말의 ‘바, 짓, 줄’ 등과 같은 말로 쓴 것이라 하고

1) ‘ㄷ’는 어떠한 사물이나 처소를 어렵치고 대신 부르는 말로 이젯말의 ‘짓, 바, 줄, 대’ 등과 같이 쓰던 말로, ‘든’은 ‘ㄷ논’, ‘둘’은 ‘ㄷ룰’, ‘덴’은 ‘ㄷ엔(ㄷ에논)’, ‘더’는 ‘ㄷ이’ 또는 ‘ㄷ익’, ‘데’는 ‘디’와 ‘에’의 합성, ‘느’는 ‘느이’의 준말로 보았다.

2) ‘스’는 ‘ㄷ’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을 어렵치고 부르는 대명사이니 이젯말로 ‘바, 짓’ 등과 같은 말이다. ‘손’은 ‘스논’, ‘술’은 ‘스룰’, ‘시’는 ‘스익’의 준말이다.

(7) 동사의 시상

예로부터 동사에는 되는 때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때매김말을 붙여 써 왔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현재시는 완료와 진행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완료는 동사 아래에 ‘거’를 붙여 쓴다. 현재진행은 동사 아래에 ‘느’를 붙여 쓴다.
- 2) 과거시는 동사 아래에 ‘더’를 붙여 쓴다.
- 3) 미래시는 동사 아래에 ‘리’를 붙여 쓴다.

(8) ‘어’의 분과

‘어’는 모르거나 아니라는 사실을 당할 경우에 놀랍고 아혹한 감정으로 내는 소리인데 이를 어느 대명사 위에 붙여 내면 곧 어느 사실을 모르면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가 되며 또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된다.

어드~어드, 어디~어디, 어드러, 어드러서, 어드리, 어뒀던, 어드메, 엇더, 엇던, 엇메~엇디, 어느, 어느, 어늬(어느이), 언제(어느제), 언마(어느마)

(9) ‘드스’와 ‘스랑’

‘드스’는 따뜻하다는 형용사인데 인간의 애정을 이르는 동사로 쓰였다. ‘스랑’은 원래 생각이란 명사이고 여기에 ‘ㅎ’을 더하여 ‘스랑ㅎ다’로 하면 생각한다는 동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애정은 따뜻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 후세 사람들이 상대자를 깊이 생각하고 또 늘 생각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하여 뜻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10) 토에 따라 몸말의 끝 바꿈

우리 옛말은 대개 낱말의 끝소리가 ㄴ, ㄷ, ㄹ의 세 소리로 된 것이 근본 모습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낱말들을 모아서 짚말로 할 때 소리를 줄이거나 또는 합하여 간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말 발전과정의 자연적 현상이었다.

- 1) 몸말 아래에 목청안울림소리(무성음)의 닿소리를 첫소리로 토가 올 때 몸말의 끝 홀소리를 줄인다.

ㄱㅌ → 𐄀, 자ㅌ → 𐄀, 머ㅌ → 𐄀, 니ㅌ → 𐄀

- 2) 몸말 아래에 목청울림소리(유성음)와 홀소리를 첫소리로 하는 토가 올 때에는 몸말의 끝소리(곧 홀소리)를 줄이지 아니한다.

ㄱㅌ아 → 𐄀 자ㅌ아 → 𐄀

머ㅌ어 → 𐄀 니ㅌ어 → 𐄀

ㄱㅌ며, 𐄀, ㄱㅌ나, ㄱㅌ니, 𐄀리라

마ㅌ며, 마ㅌ나, 마ㅌ니, 마ㅌ리라

니ㅌ며, 니ㅌ나, 니ㅌ니, 니ㅌ리라

주의: 홀소리 '아/어'가 이어질 때는 몸말의 'ㄴ/ㄹ'가 준다.

끝으로 이 국어 변천론 가운데 특이한 학설만을 추려 둔다.

1. 원시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먼저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명사가 생겼을 것이다.
2. 옛적 원시인들의 맨 처음으로 발음한 기본음이 ㄴ, ㄹ, ㅁ이었기에 고대어에 있어 낱말의 끝소리는 ㄴ, ㄹ, ㅁ 세 소리 가운데 하나로 되었다 (곧 개음절이었다.).
3. 고대에 있어서는 몸말(실사)만 있고 토(허사)는 없는 고립어의 성질을 가졌었으나 말의 시비와 경위를 똑똑이 분간하기 위하여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몸말을 덧붙여 썼는데 주장되는 말은 힘있고 명백하게 발음하고 이에 덧붙인 말은 좀 약하고 흐리게 발음하여 온 결과 그 덧붙인

몸말은 소리가 줄거나 변하여 본 모습을 잃고 어법의 관계만을 나타내 보이는 보조어 곧 토로 바뀌었다고 본다.

4. 있음움(存在詞) '이시'에서 주격토 '이', 지정사 '이', 과거시간표시 '옛/옛→왔/왔'이 분파되었다.

5. '어'는 모르거나 아니라는 사실을 당할 경우에 놀랍고 아혹한 감정으로 내는 소리인데 이를 어느 대명사(형식명사) 위에 붙여 내면 곧 어느 사실을 모르면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나 동사·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된다.

어드, 어디, 어드러, 어드러셔, 어드리, 어뒀던, 어드메, 었더, 었던, 었테, 어늬, 어늬, 언제, 언마

6.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말의 뜻이 바뀌었다.

사랑하다(思) → 사랑하다(愛)

가시야 흐다(씻어 버리고 새로이 한다.) → 다시 한다(거듭 살피고 헤아려 보고 고친다는 뜻으로 '입맛 다신다'의 '다시'를 쓴 것).